



[종합] 부동산 규제 후폭풍 전세물건 실종 대치동 은마, 매물 제로 04



Economy

코스피	2364.37 (+14.82)	코스닥	866.74 (+13.37)
금리 (미국 3개월)	0.923 (-0.030)	환율 (원/달러)	1185.40 (+2.40) (2일)

개미가 일군 거래대금 30조 시대 유관기관 과실독식 “수입 2~3배”

주식거래대금 올 3배 폭증 유관기관 수수료 사상최고 시장 독점에 경쟁력도 저하 증권사만 수수료율 대폭인하



‘주식 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 최근 각 증권사가 내세우는 문구다. 하지만 투자자가 꼭 내야 하는 비용이 있다. 바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수취하는 증권유관기관수수료다.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드는 비용이다. 일평균 거래규모가 30조원이 넘어가는 시대에 유관기관의 수수료수익이 급증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가 국내 주식 거래 시 한국거래소(KRX)에 내는 수수료율은 0.00279%, 예탁결제원은 0.0009187%다.

증권사가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완전 무료’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0.0036396%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유관제비용’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금융투자협회도 거래 시 일부 수수료를 받았지만 2013년부터 각 증권사가 따로 협회비를 내고 있다.

올해 주식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아 실적에서 체감하는 수준은 미미하다고 하지만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사상 최대 수수료 수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실제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 수익은 주식 거래대금과 비례한다. 주식시장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2017년 2190조 4686억원에서 2018년 2799조 7219억원으로 27.8% 늘었다. 해당기간 한국거래소의 ‘거래

및 청산결제수수료’ 수익도 2375억원에서 3014억원으로 26.9% 늘었다. 예탁결제원도 증권회사 수수료가 전년보다 2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거래규모가 줄어든 2019년에는 이들의 수수료 수익 역시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증권 유관기관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수료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8월 기준 일평균 거래금액은 30조원을 넘어서 지난해 일평균 거래금액(9조2992억원)의 세 배 이상 늘었다. 지난 8월까지 8개월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3425조2827억원으로 이미 전년 거래대금(2287조6130억원)을 넘어섰다.

<3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제5회 물류&e모빌리티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이정표를 향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도 크지만 우리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산업역시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개개인의 소비와 연결되는 택배를 포함한 산업대동맥인 ‘물류’, 그리고 인간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모빌리티’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빠르게 변화·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각종 기술들과 융합하면서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의 가속화가 대표적입니다. 물류와 모빌리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빠른 변화를 가져올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물류와 모빌리티의 발전상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미래 준비를 위한 시간을 더욱 앞당겨줬을 뿐입니다. 올해로 5회차를 맞는 ‘물류&e모빌리티 포럼’이 그 해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이정표를 향하여
- 일 시 : 2020년 9월24일(목) 14:00~16:30
- 장 소 : 웨비나(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후 원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 등 록 : 사전등록, 홈페이지 접수(www.metroseoul.co.kr)
접속 : 참가 신청자 이메일로 개별 공지
- 기조강연 : 주영섭 고려대학교 석좌교수(전 중소기업청장)
- 강 연 1 : 이재은 비트센싱 대표
- 강 연 2 : 김종배 KST모빌리티 대표
- 문 의 : 제5회 물류&e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풍 피해 인천으로 온 항공기

2일 인천국제공항에 제9호 태풍 ‘마이삭’을 피해 대피한 에어부산 항공기들이 주기대에 있다. 에어부산은 김해국제공항에 주기대에 있는 항공기 23대를 ‘마이삭’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과 김포공항으로 이동시켰다고 2일 밝혔다. /뉴스1

채권단 “아시아나 부채 축소” HDC현산, 빅딜 최종결정은?

산업은행등채권단이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을 내걸고 HDC현산대산개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인수조건의 핵심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을 400%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제시한 조건이 최종 방안인 만큼 HDC현산의 인수 의지가 지지부진할 경우 산업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매각협상 종료로 결정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에 따라 이번 주 계약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은행등채권단은아시아나항공 딜이 무산될 경우 기간

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정관(52조9999억)을 결정짓기 위한 운용심의회를 열기 위해선 7일전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10일까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늦어도 오는 3일까지는 HDC현산의 인수 의사가 나오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26일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금투입방안을 제안했다. 인수를 확실시 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을 400% 이내로 떨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카카오게임즈, IPO 새 역사... 증거금 58조 몰려

경쟁률 1500대1, SK팜 넘어 1억 청약해도 단 5주 불과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상 최대 청약 기록을 새로 썼다. 최종 경쟁률은 1500대 1을 넘어서며 SK바이오팜 이상의 흥행을 거뒀다.

2일 오후 4시에 마감된 카카오게임즈의 일반 공모 청약에 총 58조665억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 이전 최고 기록이던 SK바이오팜(30조9899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앞서 청약 첫날인 1일엔 16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둘째 날에만 약 42조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투자자들이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신청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입된 셈이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공동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32조6620억원, 삼성증권에 22조9694억원이 들어왔다. KB증권은 2조4351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았다.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물량은 한국투자증권 176만주(55%), 삼성증권 128만주(40%), KB증권 16만주(5%)로 총 320만주다. 경쟁률은 한국투자증권 1546.5대 1, KB증권 1521.9대 1, 삼성증권 1495.4대 1로 집계됐다.

예견된 흥행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26~27일 진행된 기관 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 기관 1745개가 참여해 1475.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이 투자자들 접속 폭주로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과열 양상을 띠며 실탄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돌아올 신주는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1500대 1의 경쟁률로 계산하면 1억원을 증거금으로 넣어도 돌아오는 주식은 대략 5주뿐이다. 1억원을 투자해도 돌아오는 것은 12만원 어치(공모가 2만4000원*5)에 불과하다.

/송태화 기자 alvin@